

월요객석



윤재민  
가온전선 대표

전선업체의 낭중지추 출현을 기대하며

사기(史記)에서 유래된 낭중지추(囊中之錐)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조나라 평원군이 초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교섭단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배경이다. 모수라는 한 식객이 자신을 스스로 추천하였으나 평소 3천여명의 식객 중에서 들은 적이 없는 인물이었다. 평원군은 "현명한 선비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과 같아서 그 끝이 금세 드러나 보이는 법이오"라고 거절하였다. 그러나 모수는 물러서지 않고 자신이 아직 주머니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주머니 속에 넣기만 하면 송곳 자루까지 밖으로 나올 것이라며 설득하였다. 두 사람의 '펼친'은 모수가 일행에 가담하여 교섭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하는 것으로 결말을 짓게 된다. 그래서 낭중지추는 능력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두각을 나타낸다는 뜻으로 알려지고 있다.

음이 있었다. 그런데 한국콜마는 화장품 사용자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ODM(제조자 개발 생산)이라는 신개념 비즈니스 모델을 업계 최초로 실현한 선두기업이라는 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화장품,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사업 영역에서 동사는 스스로 유통과 판매를 전혀 하지 않고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에게 개발·생산한 제품을 공급하는 ODM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고 있었다.

자신이 최고로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총력을 기울여 월드 베스트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생산하여, 글로벌 유통망을 가지고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면서 판매를 잘할 수 있는 메이저 화장품업체들에게 제품을 공급해 주는 비즈니스 모델! 이것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전선업체 중소기업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로 제안한다. 현재의 전선업체 중소기업들의 사업 모델은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전선업체는 OEM 방식을 통해 너무 쉽게 제조업에 진입하고 사업을 운영해 온 것도 사실이다. 대기업으로부터 제품 사양을 받고 기술 지도까지 받아서 OEM 제품들을 생산하다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자 브랜드로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러한 방식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가치를 제공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국내시장 공급과잉과 불량전선 시장 유통이라는 역효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모두들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제품을 국내나 해외시장에 파는 일이 많이 어렵다고들 한다. 정말 중소기업들이 월드 베스트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생산을 해낼 자신이 있으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전선업체도 이번 기회에 사업 방식을 바꾸는 시도를 해보는 것은 어

떨할까? 대기업과 수출 전문기업은 해외판매와 유통판매를 전담하고, 중소기업은 ODM 방식으로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좁은 국내시장이라는 주머니를 뚫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앞으로 중소기업 사장님이 특화된 신제품을 들고 와서 함께 협력을 상담하는 날을 기대해본다.

반대로 본인들이 특별히 잘하는 분야에 경영역량을 집중하고 못하는 사업분야에서는 과감하게 철수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에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이라면 잘하는 업체에게 사업을 이관시키고 다른 사업을 찾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한 선택이다. 실제로 기존 업체들이 어렵게 사업을 유지해 나가는 영역에 사업 확대라는 명분 하에 추가로 진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그 결과는 전선업체의 생태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꼴이 되었다. 지금부터라도 사업운영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통폐합을 하거나, 나보다 더 잘하는 업체에게 사업을 이양하고 철수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 될 것이다. 모든 사업의 철수 전략을 구사할 때 가장 극복하기 힘든 요소 중의 하나가 정서적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한다. 선대 회장이 창업한 회사를 내 세대에 와서 문을 닫을 경우 죽어서 조상님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는 정서적 요소가 후대 사업가들이 과감하게 사업 철수의 결정을 가장 어렵게 한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다같이 슬로 데스(Slow Death)로 가는 경영환경을 유지하는 것보다 과감하게 현상타계에 나설 때 조상님들 그리고 후손들 앞에서 더 멋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한국 전선업체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낭중지추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社 說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공존은 가능하다

에너지 문제가 최근처럼 뜨거운 토론의 주제가 된 적은 없다. 전력산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2011년 9·15 순환정전 당시에도 전력공급과 계통관리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일부 정비하는 수준으로 끝났다.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도 전력산업 전체의 문제보다는 전력산업의 수용성 문제가 재가 부각됐다.

최근의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문제는 그동안의 논쟁의 틀을 뛰어넘어 이념의 문제, 세대의 문제, 안보의 문제로 확장됐다.

에너지 전환의 중심에 원자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석유, 석탄, 가스 등 전력 생산의 주요 원자재가 전무한 상태에서 원자력은 전력생산의 30% 가까이를 담당하며, 수출주도의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견인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40년 가까이 원자력 관련 기술을 개발해 우리나라의 독자 노형인 APR1400 4기를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는 성과도 거뒀다.

지금도 전력공급 측면에서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는 30%를 상회한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지속되고 2023년 이후 폐쇄되는 원전이 매년 1기씩 생기면서 꺾일 것이다. 그렇다고 원전산업의 침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신규건설이 없는 대신 폐로산업이 원전산업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이후 본격화될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건설은 새로운 갈등의 시점이 될 것이다.

2000년대 초 부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사태에서 봤듯 원전은 계획 단계부터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항상 '계류'(鶴助) 같은 존재였다.

값싼 전기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내 주변에는 발전소가 없으면 할 것이다. 지금 원전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원전을 짓겠다고 하면 대부분 반대할 것이다.

때문에 에너지전환에 대해서는 원전 찬반을 떠나 먼 미래를 위해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가는 고민해야 한다. 요즘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 중 아쉬웠던 것이 일부 학자들의 원자력 아니냐 안 된다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찾기 위해 원전, 신재생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필요하며, 국민들이 안전한 원전을 원하는 만큼 어떻게 안전하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혼적들이 필요하다.

세계가 이미 탈원전의 추세인 것은 맞지만 2016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후 이산화탄소(CO2)를 줄이는 것이 에너지 정책의 주류가 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자유로운 원전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영국, 스웨덴 등 일찍이 탈원전을 택한 나라들이 원전카드를 만지작 거린다. 분명할 것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브릿지로 원전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우리가 '에너지전환'이란 큰 화두가 던져진 상태에서 에너지정책이 진보, 보수 이념논쟁, 세대간 갈등이 아닌 환경과 경제성을 어떻게 담보하며 에너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것인가 논의해야 한다.

에너지정책은 이해관계자의 밥그릇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새롭게 토양을 다진다는 마음으로 에너지전문가들이 토론의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경제산책

46개 공공기관의 합동채용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46개 공공기관을 7개 분야 15개 그룹으로 나뉜 그룹별로 동일한 날짜에 필기시험을 치르는 합동채용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4개 정책금융사와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항만 등 항만 4사가 등 총 8곳의 공공기관만 합동채용을 진행해 왔다.

이번 합동채용으로 인해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필기시험이 같은 날 치러지는 것을 빗댄 'A 매치데이'가 확대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 합동채용을 실시할 7개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11개), 에너지(11개), 정책금융(10개), 보건 의료(4개), 농업(3개), 환경(3개), 문화예술(4개) 등이다. 기관의 자율참여 원칙 하에 한국전력공사 등 38개 기관의 추가 합류도 결정됐다. SOC분야는 공학, 철도, 도로, 항만 등 4개 그룹

으로 세분화한다. 에너지 분야 역시 전기, 발전 등 4개 그룹으로 나뉜다.

전력공기업의 경우 한전과 한전KPS(10월 28일) 남부·서부·동서발전(11월 11일), 한수원·남동·중부발전(11월 18일)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진행한다.

기재부 측은 일부 수험생의 중복합격에 따라 응시자의 채용 기회 축소를 방지하고, 과도한

그룹별로 시험일자를 나누고, 나머지 230여개 기관은 개별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상위권 취업생들이 주요 공기업 채용을 독식하는 구조가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도 있다.

SOC공기업을 준비하는 한 취업생은 "취준생들 사이에서 서류나 필기시험 통과를 승, 패로 나누 표현한다"며 "물론 실력차가 있겠지만 누구

공공기관 합동채용에 거는 기대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동채용 실시의 목적을 밝혔다.

하지만 취업준비생들은 합동채용이 응시기회의 급격한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시험을 보는 기회 자체가 박탈될 수 있다는 비판이 높다.

정부는 이같은 수험생들의 우려를 반영하고, 응시기회가 과도하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는 전승, 누구는 전패하는 사례도 많았는데 다른 의미에서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보다 내실있는 정부의 채용정책을 기대해본다. 결국 취업준비생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정책 너머에 있는 취업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에 이 합동채용이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박경민 기자 pkm@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Electimes.com,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details.

Advertisement for SMEM Instruments, featuring various testing equipment like ATS, Tracking Tester, Chattering Counter, and Heat cycle tester.

Large advertisement for Boeun M&A, a specialized electrical engineering firm, listing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